

기세 오른 광주FC, 난적 포항 상대 3연승 도전

두 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 공수 밸런스 과시...K리그1 8일 원정경기 분위기 반전 성공한 K리그2 전남, 안방에서 성남과 7년만에 맞대결

광주FC가 상승세를 이어 '난적' 포항FC를 상대로 3연승에 도전한다.

광주는 오는 8일 오후 7시 포항스틸야드로 가서 포항스틸러스와 K리그1 2023 6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원정을 준비하는 광주의 분위기는 뜨겁다. 광주는 지난 라운드 수원FC와의 홈경기에서 이민기, 박한빈의 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엄지성과 아사니, 토마스가 모두 결장한 가운데 이룬 승리다.

또 앞선 인천전 5-0 승리에 이어 두 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완성하면서 공수에서 완벽한 밸런스를 과시하고 있다.

수원FC와의 경기에서 이화근과 산드로, 하승은 등 기존 공격진이 왕성한 활동량과 날카로운 패스를 선보였고, 데뷔전에 나선 3년차 주영재도 짧은 시간이지만 위력적인 슈팅을 날리면서 눈길을 끌었다. 올 시즌 광주로 이적한 오호성과 김한길까지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르는 등 치열한 내부 경쟁도 전개되면서 광주는 무서운 팀으로 변모하고 있다.

원정길에서 만나는 상대가 만만치는 않다. 포항은 K리그 전통의 강호다. 고영준, 제가, 김종우, 오베르단, 백성동 등 수준급 선수들이 김기동 감독이 구축한 짜임새 있는 축구를 위력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올 시즌 초반 흐름도 좋다. 앞선 전북현대와의 원정경기에서는 2-1 역전승을 거두며 3승 2무(승점 11)로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다. 5라운드를 치른 현재 광주가 3승 2패(승점 9)로 5위. 포항은 광주와 승점 2점 차 3위다.

광주는 지독한 포항 징크스에 시달렸었다. 하지만 지난 2021시즌 포항 원정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두며 징크

스를 깬다.

1부리그로 돌아온 올 시즌 FC서울, 전북 등 강팀들과의 대결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만큼 자신감은 넘친다. 포항은 올 시즌 이정호 감독이 만나고 싶은 팀으로 꼭 잡아 언급했던 상대이기도 하다.

남다른 리더십과 공격적인 스타일로 K리그1 초반 판도를 바꾼 이정호 감독이 포항을 꺾고 3연승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남드래곤즈는 안방에서 성남FC를 상대로 연승을 노린다.

전남은 오는 8일 오후 6시 30분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성남과 K리그2 2023 6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전남은 지난 2일 천안시티FC와의 원정경기에서 3-1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앞서 열린 FC목포와의 FA컵 2라운드 경기에서도 1-0으로 이기며 초반 부진을 털어냈다.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게 반갑다. 여승원은 천안 원정에서 프로데뷔골에 이어 멀티골까지 성공하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U22 장신 공격수 최성진의 매서운 발끝도 눈길을 끈다.

상승세를 탄 전남은 성남과 7년 만에 맞대결을 벌인다. 두 팀은 2016년 8월 10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의 대결 이후 리그가 엇갈리면서 오래 만나지 못했다.

전남은 부상자 명단에서 복귀한 장성재, 강민수, 이석현 등으로 전력을 강화했다. 성남은 5라운드 MVP인 크리스를 중심으로 심동운, 이종호로 전남 골대를 위협할 전망이다.

7년 만의 맞대결에서 어느 팀이 웃게 될 지 축구팬들의 시선이 광양에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가 8일 포항스틸러스와의 원정경기에서 3연승에 도전한다. 사진은 5라운드 수원FC와의 경기에서 박한빈(오른쪽)이 골을 기록한 뒤 기뻐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기습 사면' 대상에 승부 조작·금전 비리 제명자 수두룩

하태경 의원, 축구협회 목록 공개 징계기간 1년도 안된 8명도 포함 사퇴 수습책에도 팬들 시선 싸늘

대한축구협회가 승부 조작 연루 등의 사유로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에 대한 '기습' 사면과 철회 조치로 비난받는 가운데 금전 비리와 경기장 폭력 등으로 제명된 사람들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사면 대상자 목록'을 공개했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등 100명을 사면하기로 한 바 있다.

사면 대상에는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가 제명된 선수 50명 가운데 48명도 포함됐다.

하지만 승부조작 사건의 당사자들은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유로 충분한 논의 과정도 없이 갑작스럽게 사면한 데 대해 축구계 안팎에서 거센 역풍이 일었고, 축구협회는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다시 열어 사면을 철회했다.

결국 축구협회는 4일 부회장과 이사회가 모두 사퇴하는 수습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팬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사면 대상자 목록'에 따르면 승부조작에 관련된 48명 외에도 금전 비리, 선수·심판에 대한 폭력, 실기테스트 부정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52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달 31일 승부 조작 연루 등의 사유로 징계 중인 축구인들에 대한 사면 건을 재심의하기 위한 임시이사회를 마치고 입장문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승부조작(48명)과 금전 비리(8명), 폭력(5명), 실기테스트 부정행위(4명) 등으로 제명 조치를 받은 사람들도 65명이나 사면 명단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태경 의원은 "금전 비리로 무기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8명은 당시 축구협회 내·외부에서 일어난 비리 사건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라며 "2017년 축구협회 전·현직 임직원 12명이 부정행위 사용으로 형사 고발

됐는데, 이들 중 4명이 사면 대상자에 오르는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에 제명된 사면 대상자 10명도 당시에 큰 논란이 됐던 뇌물 심판 비리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난해 처분을 받아 징계기간이 1년도 안 되는 8명도 사면이 적용됐다.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등 징계의 목적과 효과를 재확인할 시간도 없이 무차별적인 사면을 단행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휴신' 나달 부상에 몬테카를로 대회 불참

프랑스오픈 전망도 어두워져

'휴신' 라파엘 나달(14위·스페인)의 클레이코트 시즌 스타트가 부상에 늦어지고 있다.

나달은 4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오는 10일 열리는 남자프로테니스(ATP)투어 몬테카를로 마스터스 불참을 선언했다.

나달은 "최고의 수준에서 경쟁할 준비가 안 됐다. 안타깝게도 내 커리어에서 중요한 대회 중 하나인 몬테카를로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회복에 힘쓰고 있으며 빨리 복귀하기를 희망한다"고 적었다.

만 36세인 나달의 올 시즌 발걸음은 무겁다. 올해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에 톱 시드로 출전했으나 2회전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호주오픈에서 영명이 부상을 떠안은 그는 당초

3월이면 코트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금은 나달이 강한 면모를 보이는 클레이코트 시즌이라 팬들이 느끼는 안타까움은 더하다.

몬테카를로 대회는 4-5월 진행되는 클레이코트 시즌에 가장 먼저 치러지는 '마스터스 1000' 대회다. 마스터스 1000은 4대 메이저 대회와 연말 열리는 왕중왕전인 파이널스 다음으로 많은 랭킹 포인트를 준다.

나달은 몬테카를로 대회 역대 최다 우승자다. 마지막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2018년 대회까지 무려 11차례나 우승했다.

코트 복귀가 늦어지면서 5월 28일 열리는 메이저 대회 프랑스오픈 우승 전망도 점차 어두워지고 있다. /연합뉴스

17연승 신진서, 한국 바둑 40개월 연속 1위

한국 바둑의 절대적인 1인자 신진서(23) 9단이 40개월 연속 랭킹 1위를 지켰다.

신진서는 5일 한국기원이 발표한 4월 랭킹에서 1만388점을 기록, 랭킹 2위 박정환(9975점) 9단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1위를 사수했다.

올해 들어 경이적인 승률 90%대의 고공 행진을 펼치는 신진서는 지난 3월 12전 전승을 거두며 최강의 위용을 과시했다.

2월 26일 KBS 바둑왕전 결승에서 박정환을 꺾고 우승한 뒤 17연승을 질주 중인 신진서는 올해 성적이 35승 3패로 승률이 무려 92.11%를 기록 중이다.

4월 랭킹에서는 신진서와 박정환의 뒤를 이어 변상일·신민준·강동윤 9단이 순위 변동 없이 3~5위를 지켰다.

최근 상승세인 김명훈 9단은 개인 최고인 6위로 한 계단 뛰어올랐고, 은퇴 의사를 밝힌 이동훈 9단이 7위, 원성진·김지석 9단과 박건호 7단은 8~10위에 자리했다.

여자랭킹 1위인 최정 9단은 전체 랭킹에서 8계단 하락한 22위로 밀렸다. 최정은 지난 달 5일 2023 센코컵 월드바둑여자최강전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으나 이후 갑자기 7연패를 당하는 등 지난달 5승 9패로 부진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스페이의 문단속, 샷건 웨딩
- 2관 리바운드, 장기자랑
- 3관 리바운드
- 4관 에어
- 5관 스페이의 문단속
- 6관 스페이의 문단속
- 9관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
- 7관 세네카를 뮌헨 이스케이프, 소울메이트, 용남이
- 8관 세네카를 에어, 소울메이트, 오토라는 남자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3-04-01(토) ~ 2023-04-30(일)

매주 수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즐거움

문화산책

국악이 있다 전통을 잇다